

IMF 극복과 천만불자 대화합 음악제

비사 관현악단

창단기념 공연 9월 29일 잠실 체조경기장

관현악 선율 어우러진 찬불가

IMF, 부도, 퇴출, 실직자... 우울한 소식만 들려 뭐 하나 신나는 일이 없는 요즘, 예불 '자심귀명례' 음계를 모티브로 한 장엄한 합창을 대 관현악 연주로 듣는다

장에서 IMF 극복과 천만불자 대화합을 위한 대 음악제를 공연한다. 일반에게도 불교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미는 현대적인 음악을 전파하여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창단되는 비사 관현악단(단장 김정희)이 7백여 연합합창단과 함께 공연하는 음악제는 총 2부로 이루어진다. 1부는 정부기교수(중앙대 작곡과)의 창작곡 '예불'과 '홀로 피는 연꽃'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찬불가가, 2부는 불자 국악인들과 연예인들의 특별 공연이 마련된다.

'예불'은 △법고 △법종 △삼귀의 △천수경 △오분향례 △예불 △반야심경 △발원문 △보현행원 △사홍서원 △산회가 등 총 11장으로 구성된다. 천수경과 오분향례, 예불은 구전되어 오는 열불을 약보화하여 관현악과 합창으로 편곡하였고 법고와 법종은 그것에 사용되는 리듬을 발췌하여 관현악과 합창으로 재편성하였다. 보현행원과 산회가는 정민섭씨의 곡을 편곡하는 등 국악과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가 망라돼 있다. 비사 관현악단은 서울에서의 공연 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

국 순회 공연과 미국 등 해외공연, 또 여건이 허락하면 북한공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MF체제후 음악공연을 거의 볼 수 없는 교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대담하게(?) 벌이는 이는 누군가, 바로 '비사문음악비학원'을 운영하는 김정희단장(36)이다. 길단장은 8년동안 음대입시기술학원을 운영해오며 불교관현악단의 창단을 위한 정지작업을 다져왔다. 학생들과 특한 나쁜 산사에 다니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길단장은 "모두가 우울해 하고 심한해 하는 이때가 바로 음악으로 고통받고



◇정동기씨



◇김정희씨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다 주어야 하며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전파하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며 연주활동에서 나온 수익금은 북한 쌀보내기, 대장경 사경 후원 등 불교계에 회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불심시심 (138)

나누지 못하는 선가의 살림

我將無限山中景 내 한 없는 산 속 경치로 (아장무한산중경) 請向吾君大路云 그대 위해 대락 말하리 (청향오군대락운) 峯下白飛溪射石 흰 빛은 바위에 날아 시내 돌 쓰고 (암하백계사석) 月邊清落磬穿雲 종경소리 구름 뚫어 달가에 지는 맑음 (월변청락경천운) 日射谷口烟猶織 햇살 골짜기에 빗겨 비단 짜는 안개요 (일사곡구연유직) 風細瀟溪水自紋 바람은 못 마음에 가늘어 절로 이는 무늬 (풍細瀟溪水自紋) 此是釋家眞活計 이것이 모두 선가의 진여스런 삶이니 (차시선가진활계) 欲分其半未能分 반쯤 나눠 주려 해도 나눌 수가 없네 (욕분기반미능분)

무용(無用 1651~1719)대사의 시이다. 이도사(李都事)에게 주는 시이다. 시의 내용은 서로의 처지에서 오는 차이를 느낄 수 없으리만큼 서경의 자연 서술로 일관되었다. 그래서 첫구에서부터 산중의 경치를 전하겠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저 산중의 경치를 모두 안아다 준 것이다. 그러나 정으로 말한다면 이 이상의 정이 있을 수도 없다. 산사를 예위한 삼라만상을 한 폭의 지면에 담았다 고스란히 선사한 것이다. 교설적 이야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고, 이것이 선가가 살아가는 진여스런 방법이라 하였으니, 여려한 이 실상이 바로 불성의 현현이라는 교설을 은연 중에 담고 있다. 길을 달리는 속가에게 심오한 교설을 설파해 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풀 앞의 잣나무가 불성의 현현이라 하듯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주변의 실상이 바로 법신의 현현이라는 스님의 교설이 바로 옳은 진제의 전달인 것이다. 이 시는 표현 수사의 묘도 일상적 언어 논리를 초탈했다. 흰 빛이 난다(白飛)하였으나 빛이 날 수는 없다. 시냇물의 격렬함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달가에 맑음이 떨어진다(月邊清落) 하였다. 종경 소리가 아득히 울려 달에까지 닿았다가 수도 없다. 산사를 예위한 삼라만상을 한 폭의 지면에 담았다 고스란히 선사한 것이다. 교설적 이야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고, 이것이 선가가 살아가는 진여스런 방법이라 하였으니, 여려한 이 실상이 바로 불성의 현현이라는 교설을 은연 중에 담고 있다. 길을 달리는 속가에게 심오한 교설을 설파해 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풀 앞의 잣나무가 불성의 현현이라 하듯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주변의 실

문화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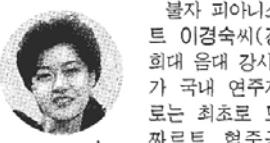
홍성에 '승무 춤비' 세운다



흰 고깔에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추는 승무를 형상화한 춤비(사진)가 세워진다.

문화관광부는 우리 전통무용을 창작, 집대성해 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한성준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기념비를 그의 고향인 충남 홍성에 건립한다. 가로 190cm 세로 150cm 높이 263cm의 규모로 청동과 화강암을 사용하며, 중견 조각가 강관욱씨가 제작을 담당한다.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행사와 연계해 제막식이 9월 27일 거행된다.

모짜르트협주곡 실황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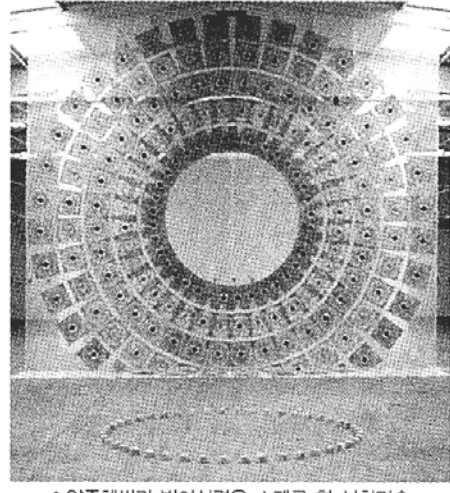


불자 피아니스트 이경숙씨(경희대 음대 강사)가 국내 연주자로써 최초로 모짜르트 협주곡 E장조 K. 271 전곡의 실황녹음을 담은 앨범을 출판했다. 이 곡은 이경숙씨가 지난 2월 뉴욕 머진 콘서트홀에서 연주한 실황 음반이다.

양주혜 설치전 반야심경 소재 '흔적지우기'

9월13일까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의 핵심적 의미를 잘 나타낸 이 경주를 설치작품화한 설치전이 9월 13일까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색과 점을 이용한 독특한 설치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양주혜씨가 '흔적지우기'라는 제목으로 갖는 이번 설치전에 등장시킨 텍스트는 반야심경과 바둑물. 5개의 글자가 한 문장을 이루고 이 53줄의 문장이 다시 원형으로 이어지며 경전이 프린트된 한지에 물감으로 색점을 찍어나가는 행위로서 흔적 지우기와 남기기를 반복한다. 또 전시장 벽면에 일렬로 설치된 바둑돌 역시 바둑돌을 놓는 행위는 바둑판을 채워나가는 동시에 바둑판의 흔적을 지워가는 행위로 이러한 작업은 모두 흔적을 지워나가 '형'에 이르고 다시 그 '형'을 흔적으로 남기는 과정을 보여준다. 양주혜씨는 "이같은 작업을 통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 역시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상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양주혜씨가 반야심경을 소재로 한 설치미술.



◇석재 서병오 작 '문운' (1935년).

石齋 서병오 서화집 나왔다

유 불 선 삼교의 사상을 넘나들며 시인으로 서예가로, 화가로 그리고 가야금과 바둑, 의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8능(八能)'으로 불린 석재(石齋) 서병오(1862~1935)의 서화 삼절집(三絶集 상하 2권)이 출간됐다. 이화문화출판사가 펴낸 이 서화집은 8절판 742쪽 울칼라로 석재선생의 대표작들인 사군자 분란 묵죽 석송 철연절구 철연대련 등 총 380여점이 실려 그의 깊은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석재선생의 글씨는 당나라 안진경체를 위주로 했지만 각체를 두루 섭렵한 후에 독창적인 서체로 유려한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창출하였으며 사군자 등 그림들은 대담하면서도 거침



없는 필치로 한국문인의 새로운 기원을 수립했다는 찬사를 들었다. 이번 서화집에는 시서화외에 석재선생이 쓰던 인보와 시 원문, 석재선생의 시문학연구, 서예예술세계, 문인화연구등의 글도 실려 있다. 값 26만원. (02)738-9980 이경숙 기자

팔만대장경 판각장소 '여러곳'

정동락씨 재질분석 통해 분사도감 위치 추정

고려대장경의 판각장소는 어디일까. 그동안 대장도감은 강주리는 게 정설처럼 돼 왔으나 최근 분사도감의 하부조각이 여러 곳에 분산위치해 판각장소로 기능해왔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고려군과 이산각연구소(소장 안준영)가 공동 마련한 고려대장경 학술발표회에서 정동락(영남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씨는 가야산 해인사와 하거사(下掘寺)가 인적(각수, 필사자, 경관제작자)·물적(경관)자원을 서로 교류하며 대장경 조성에 참여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인사에서 판각한 <대방광불 화엄경소>4권의 각수와 <강화관경 고려대장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일연대(1241년경)에 통일인물(7명)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나눠 판각했다는 것은 당시의 교통사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계라는 것. 따라서 분사도감과 대장도감은 서로 근거리에서 위치하며, 그 하부단위로 여러 곳에 공방과 같은 판각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재의 재질 분석에서도 75% 이상이 산벚나무와 들배나무류이고 자작나무와 후박나무류는 11%밖에 되지 않아 분사도감의 위치를 남해안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씨는 △하거사는 대장경을 판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해인사와 인접 지역에 위치 △각수는 물론 서체가 동일하며 △경관의 크기도 거의 같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하거사는 해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대장경을 조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와 이산각연구소가 올해 3차례 답사를 통해 확인한 고려군 생림면 하거사에 있는 절터에는 축대와 주춧돌, 외편 등이 널려있고 절 규모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볼 때 대장경을 판각한 하거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opia.com)

열린마음 열린불교.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울판을 엮여져 있다. 저자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이 물든 우리가 사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검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요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책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밤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은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